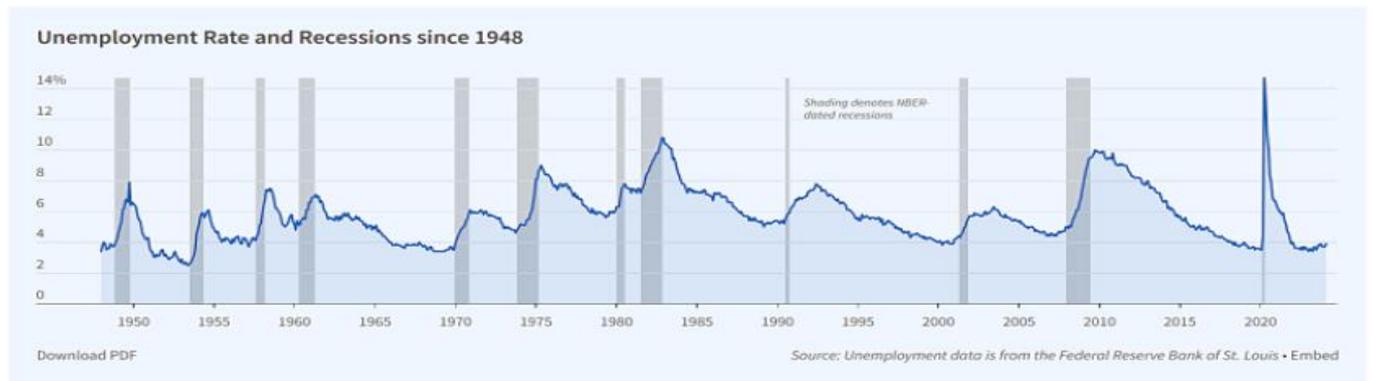


경제사이클 판단의 기준: 실업률



Register for future Business Cycle announcements
(account log-in or creation required)

참고 : NBER(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, 전미경제연구소) 의 경기침체 판단 기준

- 지난 6월 FOMC SEP에서 올해 말 실업률 전망치를 4.0%로 유지했다. 이는 미국경제가 견고하여 실업률이 추가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일 수도 있지만, 다른 한편으로는 4.0%를 초과하는 실업률 수준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연준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. 다시 말해, 연준은 노동시장 임계점(실업률 상승 전환을 막기 위한 기준)을 4.0%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해석.

경제사이클 판단의 시나리오

	금리인하 O	금리인하 X
실업률 4% 초과	1. 중립 또는 부정적	2. 가장 부정적(경기침체 ↑)
실업률 4% 이하	3. 가장 긍정적(골디락스 ↑)	4. 중립 또는 긍정적

1. 시나리오 (실업률 4% 초과, 금리인하 O) – 중립 또는 부정적

- 연준이 금리인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경제사이클 판단을 부정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. 하지만 금리인하로 실업률이 다시 4%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,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전례 없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실업률 추가 상승을 제어하거나 하락 압력에 기여할 수 있어 중립적이기도 하다.

2. 시나리오 (실업률 4% 초과, 금리인하 X) – 가장 부정적(경기침체 가능성 ↑)

- 실업률이 4%를 초과함에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금리인하를 시행하지 못하는 시나리오. 이는 과잉긴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제사이클 국면 전환 가능성을 높인다. 만약 인플레이션이 연준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연준이 '긴급하게' 금리 인하를 시행한다면 이는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신호이다.

3. 시나리오 (실업률 4% 이하, 금리인하 O) – 가장 긍정적(골디락스 가능성 ↑)

- 실업률이 4%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의도대로 제어되면서 연준이 금리인하를 '체계적'으로 시행하는 시나리오. 물론, 연준의 금리인하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 다만, 실업률이 4% 이하로 유지되는 한 자산시장의 골디락스 기대는 유지될 수 있다.

4. 시나리오 (실업률 4% 이하, 금리인하 X) – 중립 또는 긍정

- 실업률이 4% 이하에서 유지되고 있지만, 끈질긴 인플레이션으로 연준이 계획대로 금리인하를 시행하지 못하는 시나리오. 실업률이 4% 이하이므로 골디락스 기대가 유지될 수 있다. 따라서 중립 혹은 긍정적인 경제사이클로 판단한다. 마찬가지로 실업률이 지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하락한다면 인플레이션이 3%대로 높아질 수도 있다.